

데스크 시각

김지우
사회부장

진정한 균형발전, 이번엔 달라야

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티라”는 유언을 남겼다.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했다. (지방은 식민지 다·강준만)

200년 전에도 수도권 쓸림이 있었다는 걸 엊날 수 있는 내용이다. 역사가 유구한데 쉽게 끊어질 리 없다.

요즘 시대에는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단어가 200년 전 다산의 말과 비슷하게 익힌다. 사무직·연구개발 직 남방한계선은 판교까지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판교 라인, 기술적 남방한계선은 기흥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흥리인으로 불린다.

수도권 쓸림·공허한 균형발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주요 대기업 R&D 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모아놓은 ‘고급인력 남방한계선’ 지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에만 500대 기업 본사 77% (385곳)가 있고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내려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 청년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키워드인 셈이다.

‘균형발전’은 어떤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온 수많은 일자리·교육·부동산 정책과 사업이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혁신 도시, 5·2 광역경제권, 초광역협력(메가시티), 4대 특구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소극적이면서 수도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상 등 기업들이 몰려 정책만 현실화하는 움직임도 보여졌다. 이러니 수십년 간 들어온 ‘국가균형발

전’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각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했다.

지방이 책임지고 대한민국 이끌어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했고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 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분권과 균형발전, 차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5·3 특구’ 전략을 중심으로 ‘다각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광주·전남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도시로 경쟁력을 키워 5·3 특구 체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정부가 통합 시·도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인공태양 등 미래 신산업을 설계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할 때다. 지금껏 소외됐다고 오래도록 차별받았다고 울기만 할 때는 지났다.

은펜칼럼

김진구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장

광주의 청년 리더 최장우

수능은 물수능을 넘어 물먹은 솜수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용암수능을 보란 듯이 식혀준 학생이 최장우다. 전국 5명의 만점자 중에서 유일하게 인문계이다. 그리고 그 5명 중에서도 표준점수가 최고점이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예전의 표현으로는 전국 수석이다. 경향의 각종 매체에 20여 차례 출연하고 인터뷰를 했다. 필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수학이나 물리, 화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로 가는 것은 국가 전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장래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의사를 포기하면서 다른 분야를 선택하기 어렵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제학을 선택했다. 또한 사회, 수학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두 영역을 모두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경제학이다. 전공을 살려 다양한 공직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의 리더십은 학업 성적 최우수를 넘어 언행일치의 실천력까지 겸비한 균형 잡힌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달변이고 겸손하며 따뜻하게 다가가는 편안함과 대중성이 있다. 교내 학생회장과 14대 광주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교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동 시기를 조절하지도 않았다. 학생의회에서 ‘학생 진로 상담’, ‘정신건강 개선’, ‘딥페이크 범죄 방지’ 등 여러 안건을 모아 교육청이나 학교에 건의하였다. 5·18 민주평화대행진 때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선두에 서서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선창했다. 수능이 멀지 않은 직전까지도 포럼, 토론,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뛰었다. 그는 대외활동 일정을 먼저 정리해 두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바쁜 학업 속에서 대외활동은 오히려 일종의 휴식이었다고 한다.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학습 방법을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풀기 바란다. 열 문제를 푸는 대신에 단순히 풀기만 하면 한 문제만의 공부를 한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철저하게 분석하기만 한다면 열 문제, 백 문제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꼭 짚고 넘어가기 를 바란다.”

그는 비판이 아닌 비난이 많아져 사회발전이 더디다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갈망하고 있다.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갈라지고, 나이와 성별로 차별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호족(豪族)과 신라와 후백제의 후손을 모두 받아들여 고려·조반·번영을 일으킨 왕건 같은 포용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암이다. 지혜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다. 솔로문의 지혜가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어도 지식스러운 사람은 없다. 충만하게 갖춘 지식을 몸소 실천해서 국가에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뜻자리를 깔아놓고 친기과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낭만파이기도 하다.

기고

이현진
경영학 박사·전 목포시청 국장

AI와 해상풍력 그리고 목포의 역할

팅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첨단 AI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센터는 신안과 해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AI 컴퓨팅 인프라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전남 서남권이 보유한 해상풍력과 태양광 자원은 AI와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실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사업은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설계·건설·운영 단계는 물론 AI 서비스 개발, 에너지 장비 제조, 유지보수 등 관련 산업의 고용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남의 AI 인프라와 신안의 해상풍력을 연결하는 행정·산업·교육의 중심축이 바로 목포이기 때문이다. 이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 차원의 대형 인프라는 우리 지역에 들어서지만 핵심 연구와 고급 일자리, 부가가치는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중심이 되

어 교육, 연구, 주거, 문화가 결합된 정주형 인재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목포대학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AI·데이터·에너지 융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한다면 국가 인프라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목포시는 시장 부재로 인해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시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행정과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AI 지원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AI 인프라는 유지보다 ‘이후’가 더 중요하다. 준비된 지역만이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해남의 AI, 신안의 에너지, 목포의 행정과 교육 역량이 하나로 연결될 때 전남 서남권의 미래는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은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조성 이후를 대비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社說

‘속도전’ 광주·전남 통합…차분하고 꼼꼼하게

광주·전남 행정통합 방식이 주민투표가 아닌 광역의회를 통한 의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열고 실무작업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주민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사항’ 규정이 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양 시도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동의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네 번째로 추진하는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질의 기회를 맞았다. 주민투표는 생략하더라도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행정통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행정통합 이후 혹시라도 불거질지 모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추진 과정에서 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허술한 상표권 관리에 ‘도둑’ 내몰린 농민들

키워 품종의 하나인 ‘해금골드키위’를 유동하는 업체들이 상표 사용을 못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남은 전국 기위의 절반 이상을 재배하고 900여 재배농가 중 500여 농가가 해금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농가가 유통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 사용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전남농기원은 과거에도 상추 품종인 ‘흑하랑’을 개발했으면서도 상표권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영농법인이 특허청에 같은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전남농기원은 2013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해당 영농법인에 20만원에 임대했다. 당시 신청 업체가 한 곳에 불과해 어쩔 수 없었다지만 헐값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넘기고 만료가 된 뒤에도 회수하지 않은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농기원은 더구나 해당 법인이 10년 간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해 회수하지 않

는 여론도 있다.

그렇다면 광역의회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광주·전남이 초광역권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통합 명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일부 의원들이 “의회 패싱이니 숙의 과정이 부족했느니”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추진기획단이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득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추진하는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질의 기회를 맞았다. 주민투표는 생략하더라도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행정통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행정통합 이후 혹시라도 불거질지 모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추진 과정에서 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無等鼓

소설가 전경린은 ‘화과 멀’이라는 소설을 통해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인 ‘환멸’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우리는 흔히 환상이 깨어질 때 ‘환멸을 느낀다’고 표현한다. ‘환(幻)’이 멀(滅)한 상태인 ‘환멸’이라는 단어의 속뜻은 더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환은 일종의 허깨비다. 환멸은 허깨비가 사라져 본질을 운전해 볼 수 있는 순수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허깨비가 사라졌는데 환멸을 느끼나?’는 것이다. 허깨비가 사라지면 인간과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자면 이쁘게 포장된 선물상자가 사라지고

환멸

안에 담긴 선물만 보이는 상태가 환멸이다.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환멸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역설이다. 타인을 규정할 때 본질보다는 수많은 수식과 포장으로 덮칠해진 환상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몸과 정신과 암시를 가려주던 허깨비가 사라져 조리한 본질만 목격되는 순간, 우리로서는 서로에게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환멸이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곳이 정치판이다. 화려한 수식과 포장의 극치가 정치인의 정체이다. 대중에게 꼬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 벼랑 끝에 섰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과거 언행과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격을 내려놓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모두가 탑정인 시절, 국민에게 환멸을 주지 않는 정치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라질 허깨비에 치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오광록 서울본부장 kroh@

光州日報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입 국 220-0541	
편집국내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체 부 220-0661	여 론 매체 부 220-0693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텔 부 220-0697	〈FAX 222-0195〉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텔 부 220-0697	〈FAX 222-0195〉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